

2005 겨울호

마흔일곱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열심히 보낸 2005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clf.org>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보입니다!

정 연 익

오로라월드(주) 국내마케팅 본부장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보입니다'

몇 해 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된 문구입니다.

겨울이 되어 이맘때가 되면 문득 이 글이 생각나곤 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배(倍)가 되는 사랑. 사랑이란 그 이름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나누는 것에 인색합니다.

나누는 의미를 물질적인 것으로 한정시켜 두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을 나누든지, 온유한 눈길을 나누든지, 함께 기쁨을 나누거나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도 나눔임에도 언제부터인가 나눔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사랑을 나눔에도 인색해졌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무언가를 풍요롭게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나눔으로써 더 많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 사랑은 아주 커다란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그 동안의 작은 후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인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나누고, 이토록 소중한게 맺어진 인연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끝까지 어린 생명이 희망의 몸짓을 멈추지 않도록 사랑으로 노력하고,

스스로의 완치를 향한 강한 의지와 의료진에 대한 굳은 믿음, 따뜻한 가족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조그마한 관심이 어린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완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O. 사랑.....

완연한 가을 하늘은 아직도 높고 푸르기만 한데...
 기분 좋은 날씨에 취해 잠시 재영이의 아픔을 묻어봅니다.
 재영이가 아프기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작년 12월, 세상에 태어난 지 9개월이 될 무렵..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아이
 의 병명을 들어야 했어요. 아직 첫 걸음
 도 떼어보지 못한 어린 재영이인데..
 “연소형 골수성 백혈병”
 한없이 눈물만 쏟아졌고 정말 기가
 막혔지요. 한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믿기지 않았어요. 오진일거야, 의
 사선생님이 뭘 잘못 보셨을 거야.
 항암을 하면서도 한동안은 우리
 아이는 건강한데, 선생님들의 실수
 로 우리 아이가 고생을 하는 것 같
 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다가오는 현실을 언제
 까지 거부할 수만은 없었지요.
 아이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고, 제 생활은 세
 상과는 동떨어져 병원을 오가며 오직 아이에게 집중
 되어야 했습니다. 아등비등 초라한 모습으로 재영이를 들



쳐 업고 전주에서 서울로 새벽직행 버스에 오르며, 혼자
 남겨질 아직 어린 재영이의 누니를 생각하며 또 한번 가슴
 아파해야 했어요.

제 푸념이 너무 길었지요? 지금 재영이는 무균실
 에 있어요. 곧 이식을 할 거예요. 항암을 12
 회나 하다보니 재영이가 많이 지쳐있지
 만, 이식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재영이의 치료를 위해 애쓰는 동안
 천사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걸 알았어요. 얼굴도 뵈지
 못한 분들로부터 받은 큰 사랑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재영이에게도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전해져 그 어떤 치료약보다
 더한 힘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이
 생긴답니다.

아픈 아이들의 완치를 위해 오늘도 마음
 졸이며 아이들 치료에 전념하고 계실 많은
 가족 여러분! 우리 아이들 모두 병마와 싸워 이
 겨낼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 잊지 않도록 해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위 글은 연소형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13개월의 재영이 어머니께서 재단으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치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정 간호 서비스

신촌 세브란스병원 가정간호사업소 파트장 신혜선

가정 간호란?

입원 대체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이후 퇴원을 하여도 가정에서 보다 편안하고 개선된 서비스를 주치의의 연속된 치료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환자가 친밀하고 익숙한 가정에서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정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만성 폐질환 환자,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의 재활환자,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욕창 등 상처관리가 필요한 환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암환자, 제왕절개 산모 및 신생아, 기타 의사가 가정 간호가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환자 등이며 현재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가정 간호를 이용하는 환자층은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와 암환자(소아암 포함)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소아암의 경우 퇴원 후 혈액 검사와 백혈구 수치 감소에 따른 증상관리를 위해 가정 간호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치료 후 비정상적 혈액 수치를 교정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에 가정에서 편안하게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처방된 주사를 맞으면서 수치를 교정해가며 또 감염예방에 관하여서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병원을 내원하기 보다는 가정 방문을 이용한다면 우리 아이가 힘이 덜 들겠지요. 현재, 전국 76개 병원에서 가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호를 통해 가능한 의료 서비스는?

환자상태 관찰, 질병과 관련된 전반적 관리, 의사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및 주사, 채혈 등 검사, 영양수액 공급, 영양관리, 환자 교육과 질병 상담 등 주치의 진료지침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며 항시 병원과 가정이 연결되어 지도록 합니다.

방문 비용은?

기본방문비, 교통비, 처치·행위로로 구분되며 기본방문비와 처치·행위료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월8회)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1회 기본방문비(교통비 포함)는 10,000원 정도입니다.

소아암 환아를 위한 감염 예방법

퇴원 후, 일상생활에서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소아암 환아를 위한 감염 예방법을 알아 봅시다!

▶ 감염의 증세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때 감염 경고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열, 오한(떨림), 이틀 이상의 무른 대변, 소변볼 때 통증 호소, 기침과 인후통, 히크만 부위·항문 부위의 발적·통증, 입안이 헐어있는 상태 등을 그 증세로 볼 수 있습니다.

▶ 감염 예방법

- * **손씻기는 기본** : 음식을 먹기 전·후, 화장실을 다녀온 후, 놀고 난 후
- * **구강 감염 예방** : 매 식사 후와 자기 전에 양치를 합니다.
 이몸 출혈 예방을 위해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칫솔은 자주 교체해 줍니다.
 인후통이 있을 때는 물이나 정제된 식염수로 입안을 잘 헹구어 줍니다.
 시중에 파는 구강청결제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아이의 입안을 더 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오렌지, 포도 주스 같은 산성 식품은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 자제합니다.
- * **피부 감염 예방** : 양말이나 신발을 꼭 신겨줍니다.
 건조한 피부는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건조한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 줍니다.
 대변 본 후에는 항문 주위를 잘 닦아주고, 미지근한 물로 좌욕을 해주어 항문 주변의 균을 없애 줍니다.
- * **폐렴 예방** :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합니다.
 감기 있는 아이나 어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애완동물이나 먼지나는 카페트는 집에 되도록이면 놓지 않습니다.
- * **요로 감염 예방** : 물을 자주 먹게 합니다.
 여자 아이의 경우 배변 후 꼭 앞에서 뒤쪽으로 닦도록 합니다.
 헐렁한 면 팬티를 입힙니다.
 소변을 참지 않도록 합니다.
- * **ANC(절대 호중구수)가 낮을 때는 살균 처리가 되지 않은 생야채, 생과일, 생우유 등은 먹지 마십시오.**
- * **수두, 홍역, 대상포진 등에 아이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즉시 주치의께 알립니다.**
- * **처방된 항생제는 심각한 폐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 엄청난 사고몽치가 전해드리는 이야기

옆집 가게 아저씨 봉고차에 몰래 올라타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으로 공중전화 부스를 한 채를 부숩버리고, 친구 동수에게 돌을 던지는 장난을 해서 심하게 상처를 주고, 어린이 대공원 가까이 살면서 할머니에게 약수를 뜨러 가자고 조르고서는 매번 범퍼카만 10번 타고 왔던 “사고몽치 이왕태” 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몸짱, 얼짱, 맘짱 완치자 왕태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걱정 없이 지내던 사고몽치에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초등학교 3학년 때인 95년 9월 한창 운동회 연습 기간이었습니다. 릴레이 연습을 마친 뒤 교실에서 중



례를 하고 교실을 나선 순간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넘어지고, 그 위로 덩치 큰 친구가 넘어진 일이 있었지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자꾸만 옆구리가 아팠고 결국엔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 앉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는 커녕 혼자서는 집밖에도 나갈 수 없었어요. 처음엔 그 사고의 여파로 생각하고 허리가 아프니 정형외과를 가보자 해서 사진도 찍어봤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어요. 한 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약도 먹었지만 나아지는 것은 하나

없고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옹하다는 할아버지 한분이 진맥을 보고 큰 병원으로 가서 MRI검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바로 MRI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향했고 MRI촬영으로 나의 병명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즉시 입원을 했습니다. 엄마의 눈은 빨개졌고 결국 눈물을 감추질 못하셨습니다. 입원한 날부터 하루 종일 의사선생님들이 다녀가셨고 하루하루 힘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항암치료를 받으며 엄마에게 관한 짜증도 많이 부리기 시작했지요. 그러기를 며칠.. 내 몸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독한 약물 치료를 받은 탓에 머리카락은 정말 한 움큼씩 빠져버렸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나는 6인실은 생각지도 못했고 2인실마저 거부하고 꼭대기 층에 있는 1인실로 옮겨갔어요. 회진 때마다 꼭대기 층까지 찾아오셔야했던 의사선생님들.. 병원비 부담을 감당하셔야 했던 부모님.. 생각해보면 극도로 예민해진 나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3개월 정도의 입원 치료를 마친 뒤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치료를 받았던 시기가 운이 좋게도 3학년 겨울 방학 때였기에 휴학 없이 4학년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고



이 왕 태

1986년 7월 4일생
1995년 11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1998년 10월 치료종결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1년 재학



학교에 바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아낌없이 반겨주었고 담임 선생님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주신 고신대 소아과 박재선 교수님.. (교수님은 우리 사이에서 '걸어다니는 천사'로 불리셨답니다. ^^) 평생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치료로 부모님 마음을 좋게 했던 나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걱정거리를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치료를 마친 내가 조용히 공부를 하기 바라셨지만, 나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 볼링에 빠져버렸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고등학교 진학도 볼링 특기생으로 입학하였고, 매일같이 고된 연습속에 지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하여, 전국 시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걱정만 하시던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너무 기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을 잊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학교 볼링부의 사정으로 운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안하셨지만 아들이 운동선수라며 이곳저곳 자랑하고 다니셨던 아버지에게 가장 미안했어요. 이제 다른 친구들과처럼 공부를 해서 수능을 치러야 했고, 남들보다 1년을 늦게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산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1학년에 재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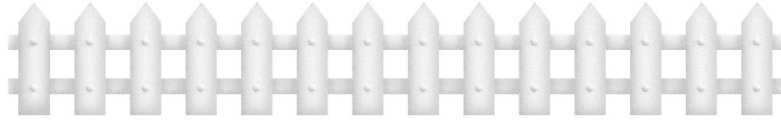
이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도 하고, 친구들과 MT도 다니며 20살 나이의 절정을 누리고 있지요. ^^ 1학기 때는 성적 우수 장학금도 받았답니다. 고등학교 시절 본의 아니게 그만뒀아했던 볼링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시 시작했어요. 볼링과 나의 인연은 뗄 수 없는 사이인 듯 하네요. 볼링을 할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원고 부탁을 받고 글을 쓰면서 나의 삶, 부모님, 주위 모든 분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전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환아들 모두,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치료 받는 기간이 조금 힘들고 괴롭지만 금방 지나갈 짧은 시간이라 생각하고 견뎌 낸다면, 나중에는 힘들고 지친 모습을 다 떨쳐내버린 즐거운 모습만 남을 거예요.”

“태풍이 머물러 있을 때는 모두가 힘이 들지만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엔 맑고 평온한 날씨가 존재하는 것처럼... 힘든 병상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천사들 아자 아자 파이팅!!”

헌사랑의 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헌사랑의 집

훈훈한 추석선물



한국신용정보(주) 여직원 회에서는 2002년부터 소아 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 가득한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올 추석, 그 사랑이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신용정보(주)의 강석인 대표님께서 여직원회의 이야기를 듣고, 소아암 가족들의 추석이 넉넉하길 바라며 참치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신용정보(주)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조혜린〉

여의도 우체국 헌사랑의 집

삼성생명 동작지점과 함께 한 날들이~



지난 11월 10일, 삼성생명 동작지점의 후원으로 여의도 헌사랑의집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이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웅산

CGV에서 영화 "윌래스와 그로밋 : 거대토끼의 저주"도 보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오므라이스와 돈까스, 스파게티, 샐러드 등... 푸짐~한 점심식사도 하였습니다.

삼성생명 동작지점 봉사자 분들은 아이들의 이모가 되어, 어머니들의 언니 동생이 되어 친근히 가족들을 대해 주셨기에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박희선 〉

2005 헌사랑 문화체험 풍경

하나!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동안 서울지역 문화체험이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발할 때 추적추적 적지 않은 비가 내려 걱정이 되었지만, 한화리조트에 도착해 짐을 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무렵.. 비도 멈추고 간간히 햇빛까지 비춰주었습니다.

용건릉을 가다.

한화리조트 용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건릉은 사도세자와 정조의 능이었습니다. 자원봉사 선생님의 친절하고 재미있는 설명과 양탄자 같이 폭신한 잔디밭이 인상적이었지요.

대장금상을 잡아라~

숙소별로 경쟁을 벌인 '요리경연대회' 주제는 떡볶이와 어묵

당.. 부실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준급 솜씨를 보여주셨습니다. 각각각색의 맛과 데코레이션.. 승부를 가리기 힘들었죠.. 웰빙상, 화기애애상, 아차상, 대장금상까지..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똑딱똑딱 만들어보자~

목공체험시간.. 사포로 문지르고 망치로 두들기고 2시간의 정성 끝에 멋진 트럭을 완성했습니다~

두울!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 집에서는 가까운 부산 해운대로 문화체험을 다녀왔습니다. 10월 21일~22일, 1박2일 동안 진행된 문화체험은 한화자원봉사단의 따뜻한

활동이 어우러져 가족들에게 어느 때 보다 더 행복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한화자원봉사단이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총렬사 방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양생물을 접할 수 있는 부산 아쿠아리움 견학, 신기한 과학상식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본 LG청 소년과학관, 가족과 함께한 핸드프린팅 등 약간의 힘든 일정이었을 텐데도 피곤한 내색없이 신나게 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가족들에게 이런 여행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병원생활과 집에서만 있어야 했을 아이들과 가족들, 그리

고 아픈 아이로 인해 제대로 나들이도 한 번 못하는 형제들에게 지친 일상에서 벗어난 행복한 추억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보기 힘든 멋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숙소와 아이들에게 맞는 식사를 위해 메뉴까지 세심히 신경써 주신 한화리조트 해운대점 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더욱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체험을 기다려주세요~

세엳!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지난 10월 14일~15일, 1박 2일 일정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43명의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은 대천 한화리조트로 문화체험을 다녀왔

습니다. 첫째 날, 성주사지, 석탄박물관을 둘러보고 핸드프린팅 체험을 하였지요. 첫 날 일정을 마무리 짓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탁트인 바닷가에 모여 모래성도 쌓고 쌀쌀한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맨발로 첨벙첨벙 물속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JA 영화촬영지 '신성리 갈대밭'을 둘러보았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치료생활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탓인지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랑이 모이는 곳...

1 기빙엑스포 2005



기빙엑스포 2005가 지난 9월 30일 ~ 10월 2일까지 대학로에서 열렸습니다.

바람직한 기부문화의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기빙엑스포에 재단도 함께 하였습니다. 소아암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한 퀴즈와 함께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를 기원하는 '희망메시지' 코너를 마련하여 벽면 가득 희망 메시지를 적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3일 동안의 기빙엑스포 행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이 완치의 그날까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파이팅!!!

2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물



삼성그룹 계열사의 임직원이 함께 모여 만들어진 삼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는 2003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돕기 정기연주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음악을 통해 밤하늘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금번 제3회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삼성계열사의 임직원분들, 그리고 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전달해 주신 후원금은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금'으로 조성되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로 지원됩니다.

3 축구선수 박주영, 희망을 전하다!



11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청소년위원회 홍보대사 박주영 선수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사인볼을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님께서 소아암 어린이에게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축구공은 지난 7월 10일 박주영 선수가 청소년 위원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기념하면서 이 땅의 소외되고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특별히 준비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친구들도 박주영 선수처럼 드넓은 운동장을 누비며 힘차게 뛸 수 있는 그 날을 기원하면서, 청소년위원회와 박주영 선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주영선수의 사인볼은 전국 25개 병원의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4 삼성SDS와 함께한 풍성한 가을

♥ 1m 1원 마라톤 대회

1997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삼성SDS의 소아암 어린이돕기 '1m 1원 마라톤 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금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액은 1,900만원으로 4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해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기꺼이 뛰어주시는 가슴 따뜻한 삼성SDS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소아암 어린이 돕기 1m 1원 마라톤이란?

대회에 참석하는 삼성SDS 주자와 이 주자를 후원하는 동료 임직원들이 1m를 뛸 때마다 1원씩 소아암 어린이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형태의 마라톤 대회입니다.

♥ 푸른마을봉사클럽 활동



2005년 10월 13일, 삼성SDS '푸른마을봉사클럽'의 주최로 컴퓨터를 이용한 예쁜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님들의 일대일 지도 덕에 아이들 모두 예쁜 그림도 그리고, 선물도 받고, 무엇보다도 지루했던 병원생활에 활기를 얻었습니다.

이날 삼성SDS에서는 대회 진행뿐 아니라 회보발송작업 및 컴퓨터 아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정비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신 삼성SDS '푸른마을봉사클럽'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 희망실은 유람선~



9월 27일,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이루어진 제1회 '희망유람선' 행사에는 140여명의 소아암 어린이가 가족 및 후원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한강 유람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의미 깊고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드림팩토리클럽(주)의 후원으로 소아암 완치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폭넓은 후원활동을 펼치고 계신 G마켓의 후원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또한 방송인 노홍철 님의 홍보대사 위촉식과 재단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똑딱이 아빠 김종석 님의 웃음치료 시간이 이

어졌습니다. 한바탕 웃고 난 가족분들은 푸짐하게 마련된 뷔페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풍성한 가을, 소아암 가족들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후원해 주신 (주)우방과 G마켓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행복한 사람들 - 공연 7주년 기념



9월 25일, 과천대공원역 공연장.

2002년부터 본 재단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고 계신 '행복한 사람들'이 2005년 9월 25일 과천대공원역 공연장에서 7주년 기념 공연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1990년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첫모임을 가진 이후 1998년 9월부터 7년간 과천대공원역에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사랑의 음악을 선물하는 '행복한 사람들'은 공연을 통해 아픈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안을 주고, 듣는 이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며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지난 15년간 변함없이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행복을 만들고 계신 '행복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 「카르멘 더 뮤지컬」 관람

10월 28일... 바람이 무척 불던 금요일 저녁, 소아암 환아 및 가족들과 함께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주)쁘리스텔에서 기획한 '카르멘 더 뮤지컬'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함이었지요. 첫 장면에서 주인공 카르멘이 와이어에 몸을 실어 등장하는 장면은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환아들과 부모님들 모두 공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좋은 공연에 초청해 주신 (주)쁘리스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8 오로라 월드, 꿈과 희망을 전해요!



2002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캐릭터 디자인 전문기업 오로라월드(주)(대표이사 홍기우, www.auroraworld.com)에서는 올해에도 1억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재단으로 기증하였습니다. 기증된 인형은 재단을 통하여 전국 21개병원의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치료종결 및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되었고, 향후 재단 행사시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입니다.

9 사랑의 헌혈증

하나, 서울양천경찰서에서는 제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를 펼쳐 모아진 178매의 따뜻한 헌혈 증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두울,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임직원분들께서는 올 여름에 이어 겨울에도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주신 100장의 헌혈 증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세엣, 재단의 명예홍보대사이신 이승환님께서 대표로 계신 드림팩토리클럽(주)에서는 이승환님의 팬들께서 모아주신 헌혈증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네엣, 재단의 후원자님이신 정호원 후원자님께서 2000년부터 매일 헌혈을 하시고 모아주신 헌혈증을 기증 하셨습니다.

다섯, 교보생명 강남빌드 지점 임시원과 FP(Financial Planner) 분들께서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주신 헌혈증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섯, KPUG(Korea Palm User Group) 동호회 회원분들께서 모아주신 헌혈증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일곱, 소아암을 이긴 완치자 강현승님께서도 정성껏 모아주신 헌혈증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해주시는 정성 가득한 헌혈증,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

♥ 특별기금지원 환아 소개(2005. 9.~11.) ♥

▶마사회기금 - 700만원

박성주(골수이형성증/영남대학교의료원)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각 500만원

민경옥(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 정지운(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김태훈(급성림프구성백혈병/성모자애병원), 이윤아(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

▶삼성SDS '1m 1원 마라톤'

윤희성(심장중양/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김윤정(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병원) 500만원

이철우(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500만원, 김병찬(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병원) 400만원

▶우체국 헌사랑기금 - 각 300만원

한승혁(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임정수(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

변수웅(비호지킨림프종/영남대학교병원) 조성빈(골수이형성증/부산백병원)

허진수(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정지영(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이다연(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여의도성모병원) 손세진(조직구증식증/파티마병원)

임화경(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이우진(윌름종양/여의도성모병원)

김지윤(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박원철(골육종/부산대학교병원)

이혜미(급성골수성백혈병/최순천남대학교병원) 진규현(섬유종증/서울대학교병원)

최영훈(급성림프구성백혈병/최순천남대학교병원)

▶차가게살자 기금

남민우(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허영구 기금

김용혁(급성림프구성백혈병/원주기독병원), 조경철(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법무법인 태평양 여자변호사모임- 150만원

배성민(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신한은행 - 128만원

박한별(연소혈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에스콰이아 기금 - 120만원

손세진(조직구증식증/파티마병원)

▶이래기금 - 각 100만원

김지연(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이승현(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배재열기금 - 100만원

김보아(뇌종양/삼성서울병원)

▶박은솔기금 - 각 100만원

김지윤(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모태산부인과 - 매월 50만원(12개월)

남민우(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하나증권(주) - 매월 30만원(12개월)

김경민(신경모세포종/부산대학교병원) 김지연(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김건희(신경모세포종/동아대학교의료원)



「상처 입은 마음의 성형」 - 스물여섯가지 미술치료의 길

Barry Cohen, Mary-Michola Barnes, & Anita B. Rankin지음 / 이윤희·주리아 옮김

소개의 글

예기치 못 한 불행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 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 한 삶을 살 수 있는 창의적인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고된 치료과정을 지나는 동안 환자와 가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상처를 가질 수 있다. 예기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는나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상처 입은 마음의 성형-스물여섯가지 미술치료의 길-」에서는 그림을 사용해서 충격적 사건의 영향을 밖으로 드러내고 후유증을 관리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저자는 그림을 사용하는 미술치료는 그림을 잘 그려야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방법으로 나 자신을 표현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치료 전문가와 함께 할 때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이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생소한 미술치료의 유효성을 가능해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촌 우체국 훈사랑의 집 임희는 사회복지사

책의 구성

1부 - 고통을 다루는 기본 기술을 개발하기

1. 호흡그리기
2. 안전한 장소 만들기
3. 보호하는 저장용기
4. 감각의 위안
5. 지원망
6. 위안을 주는 상자
7. 길 만들기
8. 휴가 안내서
9. 자기 보호를 패해지기

2부 -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기

10. 감정 풍경화
11. 감정 패턴을 수정하기
12. 여러 층이 진 감정
13. 상반된 감정의 혼합
14. 분노를 인정하기
15. 두려움의 흔적
16. 수치심과 죄책감
17. 잃은 것과 찾은 것
18. 이성과 감성

3부 -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19. 자기 이미지
20. 역할 킷트
21. 삶의 기술
22. 환경적 보호
23. 대인 관계의 경계선
24. 최고 활동 수준
25. 관계
26. 세계관

이 도서는 우체국 훈사랑의 집 미니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소책자 시리즈 추가 발간

재단은 정보지원사업의 하나로 1997년 6월부터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소책자를 발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된 소책자를 소개합니다.



- ▶ 망막모세포종의 치료
- ▶ 골육종의 치료
- ▶ 윌름스 증양의 치료

진단명별 소책자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감수하였으며, (주)사노피-신데라보 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책자는 무상 배부되며, 재단 사무국 및 각 지역별 우체국 훈사랑의 집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G마켓 후원 쇼핑 - www.gmarket.co.kr



돈이 들지 않는 신비한 기적, G마켓의 후원쇼핑을 소개합니다.

고객 분들의 후원쇼핑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모금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G마켓.

G마켓의 후원 상품 중 수혜단체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지정된 상품을 구매자가 구입할 시 판매자 또는 G마켓이 지정한 금액만큼 재단으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후원금으로 지난 10월에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문화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G마켓의 후원쇼핑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당신을 우리 재단의 일촌으로 임명합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타운(<http://town.cyworld.com/kclf>)



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일촌이 되어주세요~

일촌의 중요한 임무는?

재단의 타운을 여기 저기

소문내주세요.(입소문이 무섭다는 거 아시지요?) 소아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단과 일촌을 맺고, 본인의 미니홈피에 소아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소아암 어린이들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3 해피빈, 해피로그

NAVER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단체들의 행복한 블로그 '해피빈'에 재단의 해피로그가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해피로그로 가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네이버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가장 하단 오른쪽의 '해피빈'을 클릭하세요.

2.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서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입력 후 검색

3.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빈 페이지 클릭

4. 짜자잔~ 도착.

♥ 재단의 해피로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4 아름다운 카드, 신한 사랑나눔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는 신한카드.

신한카드사의 아름다운 사회공헌 카드, 아름다운 카드는 카



드 사용 시 결제액의 0.5~0.8%의 아름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이용 고객이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부 전용 카드입니다.

아름다운 카드로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http://www.arumin.co.kr> 접속

2. 메인 페이지 상단 '기부네트워크' 클릭

3. 기부처안내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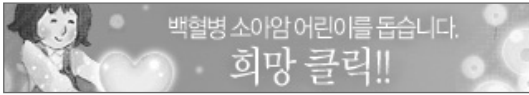
4. 아름다운기부처 검색창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입력

5. 기부하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주)롯데닷컴과 함께 하는 희망 클릭

(주)롯데닷컴에서는 '희망클릭' 이벤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이 보고계신 2005 겨울호 소식지 또한 (주)롯데닷컴의 후원기금으로 제작되었답니다. (주)롯데닷컴 홈페이지에서 '롯데닷컴과 함께 하는 희망클릭' 페이지로 가시면 희망클릭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게시판에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희망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The Fine~ 파인 카드

다양한 할인혜택과 함께 카드사용 분에 대한 적립금 보상서비스로 아름다운 나눔 문화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기업은행의 'The Fine 카드'.

2005년에도 계속될 'The Fine 카드'의 나눔 문화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롯데마트, 마일리지 기부



롯데마트 서울역지점은 고객이 물건구입 시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후원할 수

있는 '마일리지기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물건을 구입하신 후 꼭~ 마일리지를 재단에 기부하고 가세요~

*마일리지를 기부하셔도 고객님의 마일리지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기부방법>

1.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2. 계산한 영수증과 마일리지 카드를 들고, 계산대 앞에 위치한 마일리지 기부 기계 앞으로 간다.
3. 마일리지기부 기계 앞에 설명된 순서에 따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기부한다.

8 안산 가로수의 아름다운 동행

안산지역 생활정보신문 가로수에서는 광고를 게재하여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헌혈증을 접수받아 재단으로 후원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활정보신문 '가로수'에 나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소식을 찾아보세요~

9 맘스 다이어리, 맘스 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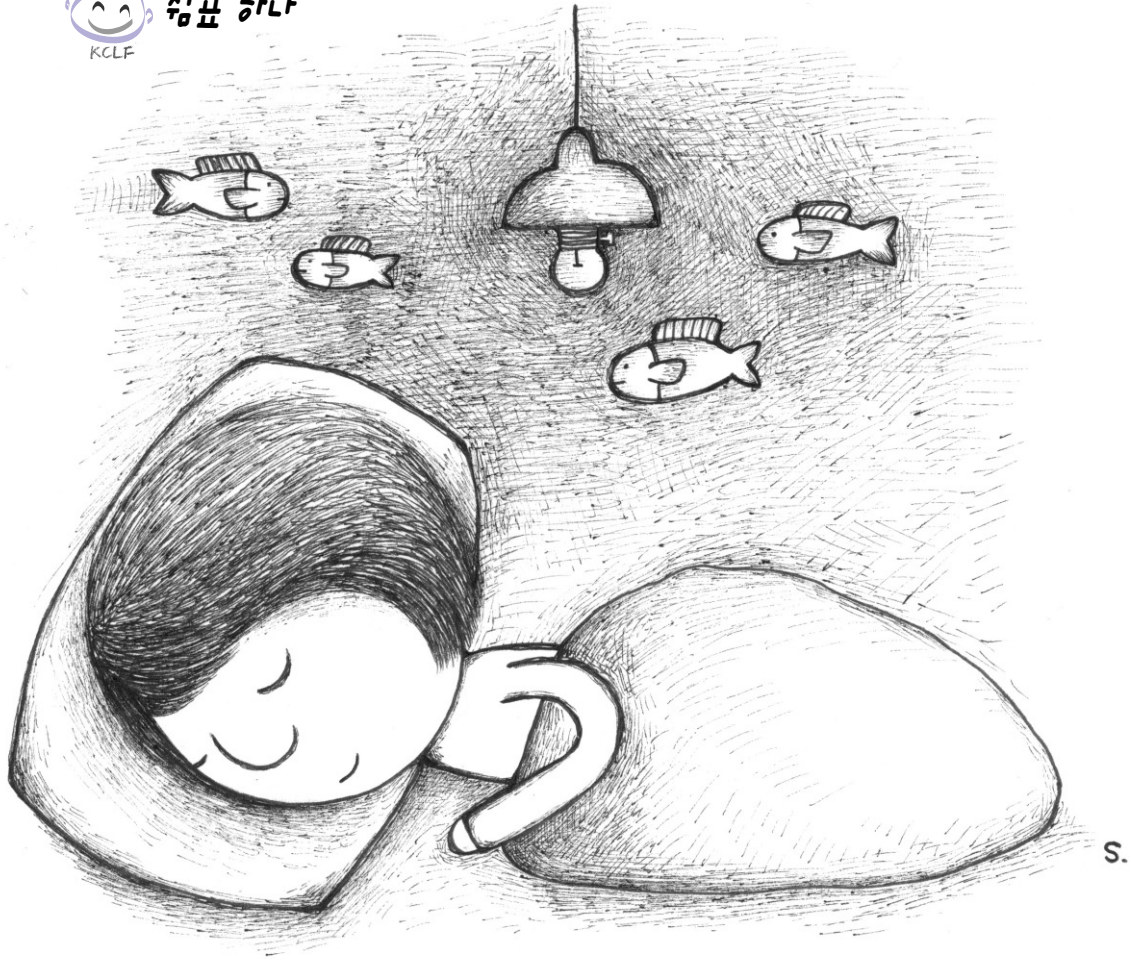
육아포털사이트 맘스다이어리는 육아쇼핑몰인 [맘스 쇼핑몰]을 오픈하였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포인트를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엔젤 포인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맘스다이어리 내 쇼핑몰 가는 방법 >

1. <http://www.momsdiary.co.kr/> 클릭
2. 홈페이지 상단 우측 '쇼핑몰' 클릭
3. 물건 구입
4. 발생한 '엔젤포인트'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





나는 겁이 많다. 그래서 늘 불을 켜놓고 잔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불을 끄고 자도 무섭지 않더라.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나보다.
씩씩하게, 두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한뫼 후원자 소식

신규 후원자 소개

(2005. 9. 1. ~ 2005. 11. 30. / 가나다 순입입니다)

김영균, 김태욱, 송미진, 송수황, 여현정, 전승용, 조현미, 한아름

▶2005년 11월 30일까지 721분이 한뫼 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만세 후원자 소식

신규 후원자 소개

(2005. 9. 1. ~ 2005. 11. 30. / 가나다 순입입니다)

신현각, 이경호, 이민호, 조영근

▶2005년 11월 30일까지 1,780분이 만세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 주신 후원자님, 이미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후원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 001-01-2353-890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농협 : 029-01-176943
우체국 : 012989-01-003327
조흥은행 : 310-03-0002396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만세후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 *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알려 드립니다!

1.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지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매년 보내드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는 후원자님들이 많으십니다. 평소 우편물 수령이 잘 되지 않은 경우나 주소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전화 (☎ 02-766-7671~3)를 주시거나 E-mail (cancer@kclf.org)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납입 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금을 CMS방법으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되며, 자동이체나 지로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서는 재단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로, 지로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천사백 이식비 지원 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2005.9. - 2005. 11.)



오경은(여/만2세)
금성골 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5년 10월 동중조혈세포이식 시행



김민지(여/만7세)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여의도성모병원
2005년 11월 동중조혈세포이식 시행

[연말특집] 일석이조 소아암 퀴즈! 소아암에 대한 정보도 얻고! 상품도 받아 가세요!

								㉑			
			①								
	㉒							②			
③											
				④		㉓			㉔		
		㉕									
	⑤			㉖					⑥	㉗	

[가로문제]

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의 쉼터로 서울, 인천, 여의도, 대구, 부산, 전남 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치료중인 아이들은 면역력이 낮아 외부의 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것을 착용합니다. 짐캐리가 주연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③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엄마세포를 말합니다. 000세포 ④ 산모와 태아를 연결하는 태반과 탯줄에서 채취한 피의 조혈세포를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병 없이 오래 산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⑥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ex) 청소년의 00이 늘고 있다.

[세로문제]

㉑ 일본인이 지어준 배우 배웅준의 별명이지요. ㉒ 백혈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는 모세포가 골수 내에서 무한히 증식하여 생기는 혈액 암을 말합니다. 소아암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것은? ㉓ '병마와 싸운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㉔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성분을 미리 뽑아 검사된 혈액성분을 주입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㉕ 혈액의 응고나 지혈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이 부족하면 출혈되기가 쉬워 멍이 잘 생깁니다. ㉖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날입니다. 재단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희망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㉗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후 신체적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면 이 현상은 사라집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2006년 1월 31일까지 아래 메일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2006년 2월 3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sw-lim@kclf.org
응모하실 때 스캔 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소아암퀴즈' 제목을 꼭 붙여주세요.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5. 11. 30. 현재)

참여후원자 : 4,449명 구좌수 : 19,000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5. 9. 1. ~ 2005. 11. 30.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농협 CMS	김인목, 윤미선, 이소연, 이애라, 전우정, 전진혁, 정가영, 정영희, 현승진	기업은행 CMS	김홍협, 동광사따
국민은행 CMS	김지원, 김태림, 이영준, 전미숙, 최석원, 최은심, 하지윤	외환은행 CMS	김경숙, 박성호
부산은행 CMS	배순여	신한은행 CMS	권오한, 방영순, 장재연
우리은행 CMS	김준용, 안철정, 이상규	우체국 CMS	노현경
제일은행 CMS	양인석	전북은행 CMS	마인선, 배오석, 서인석
		하나은행 CMS	안정남, 한재진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경남은행	514-07-0175564	광주은행	200-107-315315	국민은행	031-01-0414-356	기업은행	090-000260-04-022
농협	029-01-170940	대구은행	004-05-179828-001	부산은행	070-01-021379-8	신한은행	394-01-000694
외환은행	141-22-00799-6	우리은행	112-04-112571	우체국	012989-01-003313	제일은행	225-20-385050
조흥은행	367-01-192434	하나은행	144-121835-00105	한미은행	100-59711-251		

천사백 후원자님께서도 후원금을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CMS를 신청하시면 이런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 재단사무국으로 전화(02-766-7671 ~3)를 주시거나, E-mail(cancer@kclf.org)로 변경하실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5. 9. 1. ~ 2005. 11. 30.)

갈경영(6)	강현승(53)	권진욱(3)
교보생명 강남월드시점(30)	노대섭(30)	도미혜(78)
드림팩토리(77)	동해매화로타리클럽(37)	박상욱(3)
박용준(5)	서울양천경찰서(178)	수원새벽교회(8)
신한은행 여신관리팀(17)	심혜진(5)	안선후(2)
이완희(3)	임경욱(29)	정호원(60)
한국수자원공사 장흥댐건설단(6)	채성석(7)	KPUG(80)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100)		

*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특별 후원금

2005년 9월 (주)롯데닷컴 1,117,400	G마켓 6,928,220	
10월 미루샘합창단 1,000,000	우정사업본부 1,000,000	이성연 554,000
(주)롯데닷컴 1,075,400	G마켓 12,058,910	
11월 밝은마음동호회 823,906	이성원 1,000,000	이인희 600,000
이준배 240,000	(주)롯데닷컴 1,142,900	

▶ 후원물품 (2005. 9. 1. ~ 2005. 11. 30.)

고은석씨 굴(3박스)	기업은행노동조합 생필품	김지호 세제/화장지
김진성씨 고구마 양파	미션드림선교회 파티용식탁보	박찬중 쌀
사랑터 식료품	삼성생명동작지점 생월잔치 영화티켓	서성혁 고등어
서울대학교병원우체국 한과	이동현 김치	이주영씨 올리브유(3)
임정수씨 배즙(1박스)	정아영씨 선물세트	최영석 굴(1박스)
(주)쁘리스텔 뮤지컬티켓(23)	최영훈씨 차(2)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5년 겨울호는 **LOTTE.com**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
주!롯데닷컴